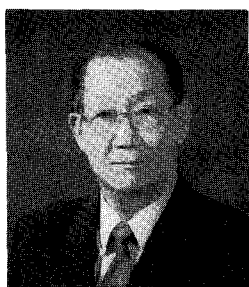




한국 닭의 기원과 설화



오 봉 국

(분회 고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리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오랜 역사와 함께 사람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가축은 닭이다. 닭이 언제부터 사람에게 의하여 가축화(家畜化)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닭의 조상이라고 볼수 있는 야계(野鷄, Jungle fowl)가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 지금도 서식하고 있다.

닭의 원종(原種)은 현재 지구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계속(鷄屬)이 4종이 있는데 이들 4종중 적색(赤色)야계는 인도 서북부로부터 마레이반도, 인도지나반도, 필리핀 군도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외모는 우리나라 적갈색(赤褐色) 재래종과 비슷하고 주로 수풀이나 산림지대에 서식한다. 기타 야계로는 스리랑카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Ceylon야계, 인도 서남부지역에 서식하는 회색(灰色)야계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서식하는 녹색(綠色)야계가 있다.

이들 4가지 야계중 우리가 현재 사육하는 닭의 시조는 적색야계라는 단원설과 다른 야계도 포함한 다원설이 있었으나 최근 생물진화에 관계되는 유전정보를 얻기 위해 세포내 작은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DNA 연구를 통해서 야계, 재래닭, 개량닭의 계통분화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색야계가 현존하는 재래닭과 개량닭의 원조라는 것과 태국을 중심으로한 동남아 지역이 가금화의 발상지로 추정하고 있다. (Akishinomiya 등, 1996. Proc. Natl. Acad. Sci. USA. 93:6792-6795)

닭의 축화연대(畜化年代)는 여러 가지 유적과 사료를 종합하여 볼 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옛날 인더스 문명(기원전 2300-1800년)이 번창하였던 「모

15-125

헨조·다르」의 도시 유적지에서 발견된 닭뼈와 닭모양의 인장이나 닭 두 마리가 싸움을 하는 듯한 점토상이 출토된 유물로 미루어 보아 기원전 3,000년전에 이미 닭이 순화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한국의 닭의 기원을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축화된 닭이 언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한국으로 유입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강면희(姜冕熙, 1977, 한국양계의 역사)에 의하면 문헌상에 나타난 기록으로는 서기 3세기 중엽의 삼국지, 위지동이전한전에 한국에는 진기하고 아름다운 꼬리가 긴 닭이 있는데 그 꼬리의 길이는 5척을 넘는다(出細尾雞, 其尾長五尺餘)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시기에 꼬리가 긴 닭을 기르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한편 닭에 관한 전설을 보면 삼국사기에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왕(赫居世王)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신라 4대 탈해왕(脫解王) 9년(서기 64년)에는 김알지를 얻을 때 닭이 숲속에서 울었다고 하여 신라의 이름을 계림(鷄林)이라 부르게 한 점으로 이루어 보면 닭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였다. 또한 Sanskrit - English Dictionary의 해석을 인용하면 닭을 인도어로 쿠쿠타(kukuta)로 발음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닭을 부를 때 쿠쿠(kuku)라고 하며, 우리말로「鷄」를 발음하여 talk라하고 印度에서는 고구려를 계귀국(鷄貴國)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여기에는 어떤 맥락이 있을 것으로 보아 한국의 닭은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인도인은 한국을 구구 예설라(矩矩 峠設羅)라고 부른다 하며, 구구(kukuta)란 닭을 뜻하며 예설라(isvara)는 귀

하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계귀(鷄貴)라 불렀다고 한다(義淨의 南海 歸奇傳). 중국의 당나라 초기(서기 615-660)에 우리나라를 「계림」이라 부른 것은 전기에 「계림도총관」이라 칭한 관명(官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이름이 닭과 관련하여 인도, 중국에까지 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양계사상 특기할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닭이 유입된 경로는 남래설(南來說)이 유력하다고 추론되나 북한지방에서 석기시대의 닭의 유골이 발견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전적으로 언어학적고장이나 문헌상으로 고찰하여 남래설을 지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결론지었다(강면희 1977, 한국양계의 역사, 한국양계 40~44). 지난 1973년 신라시대의 고분인 천마총에서 계란이 출토된 일이 있는데 출토된 계란은 서기 400~500년경의 것으로 이 당시 닭을 사육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나 적어도 계란을 귀한 식물로 여겨 왕능에 같이 매장한 것으로 미루어 닭을 사육하였으리라 추측된다. 위에서 기술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닭의 기원은 약 2,000년전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은나라시대(기원전 1300-1050년) 갑골문자에 닭을 표시하는 기호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미 이 시대에 닭을 사육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따라서 닭의 유입경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도래하였거나 중국의 남부와 북부지방을 거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닭에 관한 설화로 닭이 본격적으로 한국문화의 상징적 존재로 나타난 것은 「삼국유사」에서 혁거세와 김알지의 신라 건국신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닭은 나라 임금이 나타나거나 나라



의 경사가 있을 때 서조(瑞兆)를 미리 보여주는 새로 닭이 표현되고 있다. 닭을 숭배하는 풍속은 고구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무용총 천장에 닭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천마총을 발굴했을 때 유물중 3개의 철기안에서 2개의 완전란과 알 4개 정도의 껍질이 나왔고 또다른 껍에서도 알 껍질이 출토되었다. 다른 신라고분에서는 닭뼈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달걀과 닭고기는 부장식량으로서 일찍부터 중요한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알을 넣어둔 것은 알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부활과 재생이 종교적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닭은 수탉을 중심으로 수십마리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데 본능적으로 쫓는 습성(peak order, 쫓는 순위, 사회적 순위)을 가지고 있다. 쫓는 습성은 집단사육에서 우열을 가리며 일정한 질

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우위를 차지하는 수탉은 집단내에서 먹는 것, 노는 장소 이용권, 교미의 우선권을 장악하며 크게 울고 집단을 통솔한다. 따라서 닭은 싸움을 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닭의 인연은 투계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닭이 축화의 초기단계에서 투계와 종교적 신앙에서 길들이게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투계는 미개인이 공통적인 습성의 하나인 호전적 본능에서 오는 오락심(娛樂心) 때문이라고 추론되는데 옛날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전쟁때 닭을 가지고 다니며 투계의 용맹성을 군인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사기를 양양시키고 수호신으로서 가지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투계놀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성행하여 궁중오락에서부터 민간오락에 까지 보급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동남아 여러나라에서는 마을마다

투계장이 있고 투계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수탉이 새벽에 우렁차게 울어대는 소리는 고대사회에 있어서 때를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시계가 없던 시절 새벽시간은 닭의 울음소리로 날씨가 흐린날이나 밤시간은 닭이 헛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시간의 흐름을 파악했다고 한다. 수탉의 울음은 정확한 시간에 울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날이 새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조상제사를 지낼때는 닭 울음소리를 기준으로 피를 짓고 제사를 지냈다. 고려때 기록을 보아도 당시 왕궁에서는 일명계, 이명계라 하며, 자시(子時)에 우는 닭, 축시(丑時)에 우는 닭, 인시(寅時)에 우는 닭을 시보용으로 함께 길렀다고 한다.

닭울음에 대하여 수탉이 울면 정당성을 가지나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암닭은 여성을 의미하며 울음은 여성의 발언권을 뜻한다. 예전에 집안 일은 여자에게 그리고 바깥일은 남자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여성이 바깥일에 간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때문이며, 동양인의 남녀차별 의식에서 생긴 속담으로 생각된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빛을 불러오고 악한 귀신을 쫓는다고 생각하여 닭은 주술과 신앙에도 연결되어 있다. 닭이 울면 새벽이 오고 어둠이 끝나며 밤에 활동하는 마귀나 유령도 물러간다고 생각하여 고대 페르시아나 그리스에서는 닭을 태양신의 누이동생으로 숭배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닭의 새벽 울음에 의하여 귀신을 쫓고 광명의 태양을 맞아 준다는 수호신의 표징으로 삼았다고 한다. 닭의 거동은 민첩하고 활발하며 그의 울음소리는 천하를 울리는 높은 소리로 심혈을 다하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더욱이 숭배

의 존재가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갈대-닭-복숭아」를 삼위일체로 하는 신앙이 있어 음력 정월초가 되면 대문 처마에 닭을 매달고 갈대로 꼬은 새끼를 쳐 놓고 대문에는 복숭아의 배목판을 붙여서 마귀를 쫓았다고 한다. 여기서 닭의 피는 사기(邪氣)를 내치고 갈대로 만든 새끼는 부정을 막는 인줄 구실을 하며 복숭아 나무판은 축귀(逐鬼)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고대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정월 초하루에 부치는 계호도도 축귀의 마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李春寧, 1985 한국가금발달사, 고대가금의 민화와 전설). 닭은 새벽을 알리고 광명을 불러와 귀신을 쫓는 서조(瑞鳥)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벽사의 기능을 유의해서 장례 행진 때에는 악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흰 수탉을 관 위에 놓기도 한다.

노계화신의 전설을 소개하면 문경새재의 잣마루에는 처녀 성황이 있다는데 이 처녀신은 닭의 화신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임진란때 신헌장군이 과거를 치러 갈때에 새재의 한 부자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집은 밤마다 나타나는 괴물에 의하여 대가족이 하나씩 죽어가 마지막 처녀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신헌은 그 날밤 그 괴물과 싸워 이겼는데, 아침에 보니 그 집에서 기르는 늙은 닭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와같이 닭의 주력을 두려워하여 닭고기나 달걀을 먹지 않는 지방의 풍습도 있다고 한다 (李春寧, 1986 한국가금발달사).

닭이 서조라는 인식하에 한시외전에 닭에도 오덕이 있다고 했다. 즉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은 文이요, 발에 삼지창을 지닌 것은 武요, 적

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용이요, 먹이를 보면 동기들을 모으니仁이요, 밤을 지켜 때를 놓치지 않고 이를 알리니信이라고 하는 다섯가지를 말한다. 닭이 서조라는 표현으로 인도의 불전에 나오는 서조「迦陵頻伽」는 상반신은 보살형 불신이고 하반신은 계신이라 하였고 일본 흥복사에는 인신계두의 불상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세시민속에 정월초하루를 닭의 날(酉日), 초이튿날을 개의날(戌日), 초사흘날을 양의 날(羊)등으로 정하고 해당되는 날에 해당되는 가축을 잡지 않는 민속이 있어 왔다. 그리고 닭과 점(占卜)에 대하여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보름달 먼동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맨먼저 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헤아려서 그 울음소리가 열 번이 넘으면 풍년이 드는 것으로 점을 쳤다. 그리고 닭의 날인 정월 초하룻날이 맑으면 계천청기라 하여 나라가 태평

하고 온 천하에 풍년이 든다는 조짐으로 삼았다.

또한 백년가약을 맺는 혼인의례의 증인으로 수탉과 암탉을 푸른천과 붉은천에 싸서 결혼식 탁자위나 아래에 놓아 두는데 이것의 의미는 닭이 아침과 관련이 깊고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리고 암탉이 달걀을 많이 낳으므로 신부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뜻을 전하기도 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닭에 관한 전설은 수탉의 당당한 외모와 때를 알리는 우렁찬 새벽의 닭울음소리, 알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부활, 쪼는 습성에서 나온 투계노리 등 닭의 특수한 생리와 외모, 습성이 닭을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서조로 여겨져 왔으며 닭이 주력을 갖는다는 전통적 신앙도 그 여명을 아는 주력 때문일 것이다. (자료: 대한민국학술원 통신지) **양계**

양계속보 게재내용 및 구독안내

1. 게재내용

- 가. 새소식 : 국내외 양계업계 소식 및 질병, 생산과 관련된 각종 새소식 등을 게재
- 나. 금후전망 : 양계산물 유통에 대한 금후 전망을 육계, 달걀을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
- 다. 양계산물 시세 : 일별 달걀, 산지 육계가격 및 각종 병아리, 노계, 토종닭 시세 등
- 라. 10대 회사 주간 양계사로 생산실적
- 마. 육용종계 · 실용계, 산란종계 · 실용계의 주간 종란입란 및 병아리 발생실적

2. 구독료 및 구독방법

- 가. 구독료 : 1부당 연간 15만원(단체구독 : 10만원(20인 이상))
- 나. 발송방법 : 팩시밀리 또는 E-mail
- 다. 발송횟수 : 주 2회(화, 금요일)

3. 구독신청 및 문의

- 농협 097-01-000953(예금주 : 대한양계협회)
- (☎ 02-588-7651 담당 : 유 중 현)